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 및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

이 승 희¹⁾

김 광 웅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465명과 그들의 부모 46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t-test,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부갈등 빈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다 아동의 위축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고, 부부갈등 강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다 아동의 위축행동과 미성숙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집단의 아동은 낮은 집단 보다 미성숙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고, 부부갈등에 대해 지각된 위협이 높은 집단의 아동은 낮은 집단보다 과잉행동, 위축행동, 미성숙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제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은 수용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보다 위축행동과 공격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 빈도가 낮고, 부모자녀 관계가 통제적일 때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 강도와 해결정도가 높고, 부모자녀 관계가 수용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어 : 부부갈등, 부모자녀 관계, 아동의 행동문제

1) 교신저자: 이승희, 신길 종합사회복지관 놀이치료사, E-mail: seunghye6017@hanmail.net

2)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I. 서 론

최근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황은 가족, 특히 부부간의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많은 가족문제가 발생될 우려를 낳고 있으므로 부부 갈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아동의 행동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 연구 분야에서 시급한 과제다.

부모간의 갈등을 관찰하는 것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며(Cummings et al., 1989) 적응문제의 발생과 연관된다. 결국, 많은 아동들이 불가피하게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정서적 적응 및 행동상의 적응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아동의 공격성, 품행장애,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가 부부갈등과 관계가 있으며(변영인, 1995; 박수잔, 1996; Emery & O'Leary, 1984; Harold, Fincham, Osborn, & Conger, 1997; Hetherington, Cox, & Cox, 1982), 위축, 우울증 등과 같은 내면화 문제도 부부갈등과 관련이 있다(권영옥, 1998; Holden & Ritchie, 1991; Johnston, Gonzales, & Campbell, 1987)는 것이다. 또한 부부갈등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가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아동의 행동문제를 가져온다(Harold & Conger, 1997; Holden & Ritchie, 1991)는 결과도 보고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갈등과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어,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관계, 아동의 행동문제 이 세 가지 변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아동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해석이 아동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며(Furman &

Buhrmester, 1985), 부부갈등을 아동 자신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가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김소향, 1994; Grych & Fincham, 1993)고 보고 되었다. 그러므로 부부 갈등과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해석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 하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간의 관계를 기존의 연구자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갈등의 다차원적인 측면과 부모자녀 관계의 수용적이고 통제적인 측면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기에 나타나는 행동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발생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가정에서의 부부 갈등 상황과 부모자녀 관계를 아동이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정서 행동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부모들에게 효과적인 자녀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며, 나아가 부부 갈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아동 행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부부갈등 상하 집단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는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자녀 관계의 통제적 집단, 수용적 집단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는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과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465명과 그들의 부모 4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 도구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Grych 등(1992)이 부부갈등의 여러 가지 차원을 아동이 직접 평가하도록 고안한 도구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 1992)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정도, 내용과 갈등에 대한 아동의 평가에 해당하는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 안정성의 9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3점 척도로 평정되며,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부부갈등 빈도의 Cronbach's α 는 .74이었고, 강도는 .81, 해결정도는 .80, 내용은 .76, 지각된 위협은 .82, 대처 효율성은 .66, 자기비난은 .69, 삼각관계는 .57, 안정성은 .54이었다.

부모자녀 관계 검사

부모자녀 관계 검사는 부모의 행동패턴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이 자신의 부모의 태도를 어떻

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의 느낌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였으며, 문항은 Fels 연구소에서 개발한 Parent Behavior Rating Scale(PBRS)의 문항을 모체로 변안하여 발전시킨 김재은(1974)의 '가정환경 검사 척도'를 수정 보완한 이은주(1999)의 부모자녀 관계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를 수용적으로 지각하고 낮을수록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32개 문항 전체의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아동 행동문제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BCL, Achenbach & Edelbrock, 1983)를 한미현·유안진(1995)에 의해 번안, 수정되어 타당도가 검증된 1991년판 아동행동평가척도(CBCL)를 사용하였다. 1991년판 CBCL에서는 9개의 하위영역 중 과잉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의 5개 영역을 아동 행동문제 척도에 포함시켰다. 전체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행동문제를 더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과잉 행동의 Cronbach's α 는 .72이었고, 불안행동은 .67, 위축행동은 .73, 공격행동은 .60, 미성숙 행동은 .68이었다. 40개 문항 전체의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3년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14일 동안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해당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와 응답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담임의 재량 하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

첫째, 부부갈등의 상하 집단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의 통제적 집단과 수용적 집단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부부갈등 상하 집단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의 차이

부부갈등 변수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부부갈등 변수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의 하위유형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부부갈등 빈도에서는 위축행동에서 부부갈등 빈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t = -2.32, p < .05$)를 보였다. 즉, 부부갈등 빈도가 높은 집단의 아동은 낮은 집단보다 위축행동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 강도에서는 위축행동($t = -3.09, p < .01$)과 미성숙행동($t = -2.33, p <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부갈등 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위축행동과 미성숙행동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 해결정도에서는 미성숙행동($t = -2.13,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미성숙행동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지각된 위협에서는 과잉행동($t = -2.80, p < .01$)과 위축행동($t = -2.70, p < .01$), 미성숙행동($t = -4.40,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각된 위협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과잉행동, 위축행동, 미성숙행동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자기비난에서는 공격행동($t = -2.05, p <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기비난이 높은 집단의 아동은 낮은 집단보다 공격행동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삼각관계(triangle relation)에서는 위축행동($t = -1.99, p <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자녀 간 삼각관계가 높다고 지각한 집단의 아동은 낮은 집단보다 위축행동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안정성에서는 위축행동($t = -3.01, p <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부갈등의 원인이 안정적이라고 높게 지각한 집단의 아동은 낮은 집단의 아동보다 위축행동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갈등의 내용, 부부갈등의 대처 효율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의 통제적 집단과 수용적 집단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의 차이

부모자녀 관계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자녀 관계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공격행동($t = 3.04, p < .01$)에서 통제적 부모자녀 관계 집단과 수용적 부모자녀 관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통제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이 수용적인 부모자녀 관계집단보다 위축행동과 공격행동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부부갈등 변수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의 차이

변수	집단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M	SD	M	SD	M	SD	M	SD	M	SD
빈도	높은집단	12.40	2.90	12.23	2.62	10.41	2.47	9.61	1.73	11.09	2.44
	낮은집단	12.45	2.96	12.34	2.84	9.92	2.07	9.45	1.69	10.87	2.41
	t	.16		.41		-2.32*		-.97		-.95	
강도	높은집단	12.51	2.89	12.30	2.68	10.54	2.48	9.64	1.78	11.26	2.49
	낮은집단	12.33	2.96	12.25	2.75	9.88	2.11	9.45	1.64	10.74	2.34
	t	-.67		-.22		-3.09**		-1.21		-2.33*	
해결정도	높은집단	12.52	2.93	12.29	2.76	10.30	2.36	9.65	1.76	11.29	2.49
	낮은집단	12.35	2.92	12.26	2.68	10.15	2.29	9.47	1.68	10.80	2.37
	t	-.61		-.10		-.66		-1.10		-2.13*	
내용	높은집단	12.50	2.77	12.12	2.70	10.38	2.49	9.70	1.86	11.24	2.60
	낮은집단	12.37	3.02	12.37	2.72	10.11	2.20	9.44	1.60	10.86	2.31
	t	-.5		.96		-1.23		-1.54		-1.64	
지각된위협	높은집단	12.81	2.99	12.44	2.61	10.51	2.41	9.65	1.74	11.51	2.63
	낮은집단	12.05	2.81	12.11	2.80	9.93	2.20	9.44	1.69	10.53	2.12
	t	-2.80**		-1.31		-2.70**		-1.28		-4.40***	
대처효율성	높은집단	12.40	3.02	12.44	2.75	10.19	2.46	9.48	1.72	11.00	2.47
	낮은집단	12.44	2.83	12.12	2.67	10.22	2.19	9.60	1.71	11.01	2.39
	t	.12		-1.25		.14		.72		.06	
자기비난	높은집단	12.67	2.81	12.21	2.68	10.28	2.40	9.70	1.76	11.14	2.46
	낮은집단	12.16	3.02	12.34	2.74	10.14	2.24	9.38	1.65	10.86	2.40
	t	-1.88		.48		-.63		-2.05*		-1.21	
삼각관계	높은집단	12.58	2.77	12.28	2.86	10.46	2.54	9.61	1.73	11.24	2.54
	낮은집단	12.30	3.03	12.26	2.59	10.02	2.13	9.49	1.70	10.82	2.33
	t	-1.00		-.07		-1.99*		-.69		-1.85	
안정성	높은집단	12.33	2.89	12.25	2.56	10.61	2.60	9.58	1.60	10.98	2.39
	낮은집단	12.48	2.95	12.29	2.81	9.93	2.07	9.52	1.79	11.02	2.46
	t	.55		.17		-3.01**		-.36		.17	

표 2. 부모자녀 관계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의 차이

	통제적 부모자녀 관계집단		수용적 부모자녀 관계집단		t
	M	SD	M	SD	
과잉행동	12.54	2.92	12.25	2.92	1.03
불안행동	12.08	2.56	12.55	2.90	-1.82
위축행동	10.40	2.49	9.93	2.01	2.26*
공격행동	9.74	1.75	9.25	1.62	3.04**
미성숙행동	11.14	2.45	10.79	2.40	1.50

표 3.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효과의 이원변량분석

N=465⁺

하위 영역	변량원	SS	df	MS	F
과잉행동	주효과(부모자녀 관계)	14.46	1	14.46	1.71
	주효과(부부갈등 빈도)	.18	1	.18	.02
	상호작용효과	49.58	1	49.58	5.86*
	오차	3843.14	454	8.47	
불안행동	주효과(부모자녀 관계)	23.98	1	23.98	3.27
	주효과(부부갈등 빈도)	.00	1	.00	.00
	상호작용효과	1.89	1	1.89	.26
	오차	3336.91	455	7.33	
위축행동	주효과(부모자녀 관계)	15.11	1	15.11	2.84
	주효과(부부갈등 빈도)	17.42	1	17.42	3.27
	상호작용효과	1.90	1	1.90	.36
	오차	2457.50	461	5.33	
공격행동	주효과(부모자녀 관계)	26.92	1	26.92	9.44**
	주효과(부부갈등 빈도)	.75	1	.75	.26
	상호작용효과	17.70	1	17.70	6.21*
	오차	1308.61	459	2.85	
미성숙행동	주효과(부모자녀 관계)	11.86	1	11.86	2.01
	주효과(부부갈등 빈도)	3.41	1	3.41	.58
	상호작용효과	10.24	1	10.24	1.74
	오차	2695.40	458	5.89	

+전체 집단(N=465)에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상·하 집단(N=465)에 대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음.

* p<.05, ** p<.01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효과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해결정도와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86, p<.05$).

즉, 과잉행동에 대하여 부부갈등의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가 독립적으로 주효과를 보이지는 않으나, 이들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빈도가 높고, 부모자녀 관계가 수용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나고, 이와 반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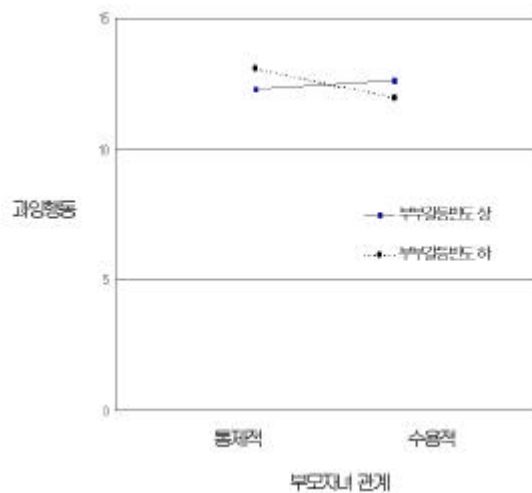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의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효과

부부갈등 빈도가 낮고, 부모자녀 관계가 통제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과잉행동과 함께 공격행동에서도 부부갈등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21, p<.05$).

즉, 공격행동에 대하여 부부갈등의 빈도는 독립적으로 주효과를 보이지 않으나, 부모자녀 관계는 독립적으로 주효과를 보이면서, 이들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2와 같다.

부부갈등 빈도가 높고 통제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이 수용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보다 공격행동이 더 높게 나타나고, 부부갈등 빈도가 낮고 통제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이 수용적인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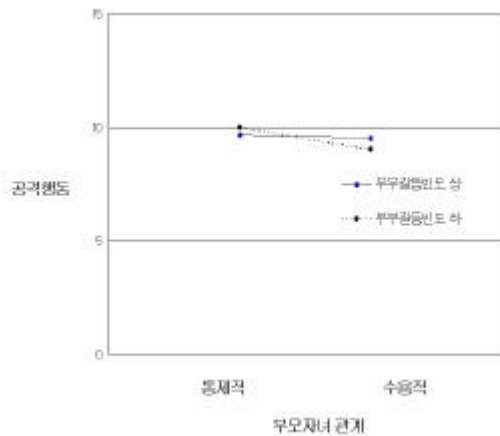


그림 2. 아동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모자녀 관계 집단보다 공격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67$, $p<.05$).

표 4.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효과의 이원변량분석 N=465

하위 영역	변량원	SS	df	MS	F
과잉행동	주효과(부모자녀 관계)	4.43	1	4.43	.52
	주효과(부부갈등 강도)	7.04	1	7.04	.83
	상호작용효과	39.63	1	39.63	4.67*
	오차	3852.99	454	8.49	
불안행동	주효과(부모자녀 관계)	27.47	1	27.47	3.75
	주효과(부부갈등 강도)	3.60	1	3.60	.49
	상호작용효과	2.25	1	2.25	.31
	오차	3333.96	455	7.33	
위축행동	주효과(부모자녀 관계)	13.18	1	13.18	2.49
	주효과(부부갈등 강도)	39.77	1	39.77	7.53**
	상호작용효과	.65	1	.65	.12
	오차	2435.56	461	5.28	
공격행동	주효과(부모자녀 관계)	20.84	1	20.84	7.26**
	주효과(부부갈등 강도)	2.59	1	2.59	.90
	상호작용효과	6.91	1	6.91	2.41
	오차	1318.37	459	2.87	
미성숙행동	주효과(부모자녀 관계)	5.79	1	5.79	.99
	주효과(부부갈등 강도)	30.08	1	30.08	5.15*
	상호작용효과	7.30	1	7.30	1.25
	오차	2675.19	458	5.84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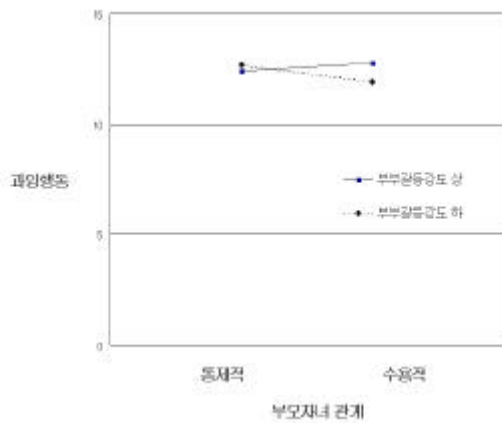


그림 3. 아동의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즉, 과잉행동에 대하여 부부갈등의 강도와 부모자녀 관계는 독립적으로 주효과를 보이지 않으나, 이들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3과 같다.

부부갈등 강도가 높고 부모자녀 관계가 수용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나고, 이와 반대로 부부갈등 빈도가 낮고, 부모자녀 관계가 통제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해결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효과의 이원변량분석 N=465

하위 영역	변량원	SS	df	MS	F
과잉행동	주효과(부모자녀 관계)	.08	1	.08	.01
	주효과(해결정도)	10.16	1	10.16	1.20
	상호작용효과	44.48	1	44.48	5.25*
	오차	3848.88	454	8.48	
불안행동	주효과(부모자녀 관계)	28.37	1	28.37	3.87*
	주효과(해결정도)	3.81	1	3.81	.52
	상호작용효과	1.87	1	1.87	.25
	오차	3334.41	455	7.33	
위축행동	주효과(부모자녀 관계)	14.55	1	14.55	2.71
	주효과(해결정도)	.90	1	.90	.17
	상호작용효과	4.91	1	4.91	.92
	오차	2470.67	461	5.36	
공격행동	주효과(부모자녀 관계)	18.11	1	18.11	6.27*
	주효과(해결정도)	.57	1	.57	.20
	상호작용효과	.77	1	.77	.27
	오차	1325.39	459	2.89	
미성숙행동	주효과(부모자녀 관계)	1.25	1	1.25	.21
	주효과(해결정도)	28.49	1	28.49	4.88*
	상호작용효과	13.54	1	13.54	2.32
	오차	2675.06	458	5.84	

* $p < .05$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해결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해결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해결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25, p<.05$).

즉, 과잉행동에 대하여 부부갈등의 해결정도와 부모자녀 관계는 독립적으로 주효과를 보이지 않으나 이들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해결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해결정도가 높고 부모자녀 관계가 수용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나고, 이와 반대로 부부갈등 해결정도가 낮고, 부모자녀 관계가 통제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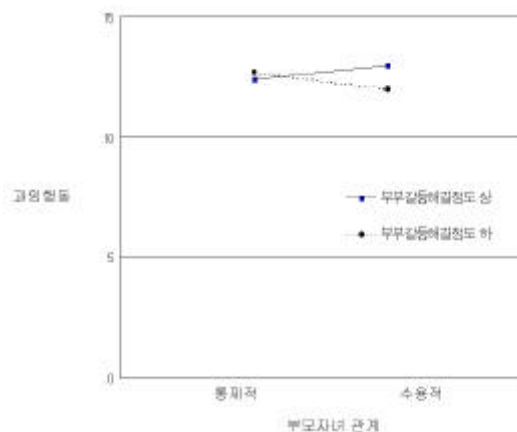


그림 4. 아동의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해결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갈등의 상하 집단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위축행동에서 부부갈등 빈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부부갈등의 빈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다 위축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 강도에서는 위축행동과 미성숙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부갈등 강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다 위축행동과 미성숙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에의 노출 정도가 많고, 부부갈등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아동일수록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불안정한 상태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움추려 드는 행동이나 의존적이고 나이에 비해 어린 행동을 보인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부부갈등 해결정도에서는 미성숙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다 미성숙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나이에 비해 어린 행동을 보인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부부갈등 지각된 위협에서는 과잉행동과 위축행동, 미성숙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부갈등 지각된 위협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과잉행동, 위축행동, 미성숙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 상황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과도한 활동을 보이거나 사회적으로 움추려 드는 행동, 나이에 비해 어린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갈등 자기비난에서는 공격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부갈등의 자기비난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공격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의 원인이 아동 자신에게 있다고 지각하여 아동은 부모간 갈등 상황을 저지하거나 그치게 하기 위한 중재수단으로 행동문제를 보일 수 있는데 이를 공격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부부갈등 삼각관계에서는 위축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부갈등 삼각관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위축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 사이에서 아동이 느끼는 곤란함이 클수록 부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움추려 드는 행동을 보인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부부갈등 안정성에서는 위축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부갈등 안정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위축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의 원인이 변하지 않는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분노를 느끼게 되고, 심리적인 불편감과 사회적 위축 등 내면화 문제를 나타낸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부부갈등의 내용, 부부갈등의 대처 효율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내용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O'Brien et al., 1991)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극심한 부부 갈등으로 인해 학대받는 어머니의 자녀가 정상가정의 자녀보다 높은 행동문제를 보인다는 Holden과 Ritchie(1991)의 연구나 부부 갈등이 낮은 가정의 아동과 부부갈등이 높은 가정의 아동간에 행동문제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Long과 동료들(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자녀 관계의 상하 집단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는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위축행동과 공격행동에서 통

제적 부모자녀 관계 집단과 수용적 부모자녀 관계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통제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은 수용적인 부모자녀 관계집단보다 위축행동과 공격행동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이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경험하면서 내면화 문제인 위축행동을 증가시키거나 외현화 문제인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통제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관계가 있으며, 위축행동을 증가시켜 공격적 행동을 악화시킨다는 Quiggle과 그의 동료들(1988)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부모가 수용적일수록 공격성은 낮고, 통제적일수록 공격성은 높다고 한 이은주(199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또한 부적절한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를 밝힌 Baron과 Kenny(198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부갈등의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빈도와 부모자녀 관계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빈도가 높고, 부모자녀 관계가 수용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부부갈등 빈도가 낮고, 부모자녀 관계가 통제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 빈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과잉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 빈도가 높고, 통제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이 수용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보다 공격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고, 부부갈등 빈도가 낮고 통제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이 수용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보다

공격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노출 정도가 많다고 지각하는 아동의 경우,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는 부모에게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고, 이처럼 누적된 적개심과 분노가 외적으로 표출되어 또래를 비롯한 타인에 대한 충동적,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아동의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강도가 높고 부모자녀 관계가 수용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부부갈등 빈도가 낮고, 부모자녀 관계가 통제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을 심각하게 지각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과잉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아동의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해결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고 부모자녀 관계가 수용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낮고, 부모자녀 관계가 통제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이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고, Bandura(1977)의 모델링 가설에서와 같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하면서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아동이 부모의 부정적인 행동방식을 모델링하거나 대리 학습함으로써 과잉행동이 증가되는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있는 가정의 어머니는 양육태도에 일관

성이 없고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높으며 (Holden & Ritchie, 1991), 부부 갈등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대감과 관계가 있어서 결국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내면화 행동문제를 예측하게 한다(Harold & Conger, 1997)고 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부부갈등 및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부부갈등 빈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 부부갈등 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부부갈등 해결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아동의 과잉행동이나 공격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의 빈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다 위축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고, 부부갈등 강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다 위축행동과 미성숙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다 미성숙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고, 부부갈등 지각된 위협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과잉행동, 위축행동, 미성숙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자기비난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공격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고, 부부갈등 삼각관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위축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 안정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다 위축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갈등의 내용, 부부갈등의 대처 효율성의 상하집단에 따라서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제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은 수용적인 부모자녀 관계집단보다 위축행동과 공격행동

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잉행동, 불안행동, 미성숙행동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빈도가 높고, 부모자녀 관계가 수용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부부갈등 빈도가 낮고, 부모자녀 관계가 통제적일 때에도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 빈도가 높고, 통제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이 수용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보다 공격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고, 부부갈등 빈도가 낮고, 통제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이 수용적인 부모자녀 관계 집단보다 공격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강도가 높고, 부모자녀 관계가 수용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부부갈등 빈도가 낮고, 부모자녀 관계가 통제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고, 부모자녀 관계가 수용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낮고, 부모자녀 관계가 통제적일 때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본 연구를 통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 갈등과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족관련 변수인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관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가족관련 변수들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질과 같은 아동관련 변수에 의한 차이를 검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추후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관계의 상하집단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다른 연구들에서도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 되어왔다. 후속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치료적 접근 방법이나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소향 (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은 (1974). 한국 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권영옥 (199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행동 문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수잔 (1997).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변영인 (1995).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양육태도와 이탈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주 (1999).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적 적응 및 또래 수용도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현, 유안진 (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ummings, J. S., Pellegrini, D. D., Notarius, C. I., & Cummings, E. M. (1989). Children's responses to angry adult behavior as a function of marital distress and history of interparent hostility. *Child Development*, 60, 1035-1043.
- Emery, R. E.,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de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11-420.
- Furman, W., & Buhrmester, E.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 Conger, R. D. (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 333-350.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333-350.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79). Play and social interaction in children following divorce. *Journal of Social Issues*, 35, 26-49.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Long, N., Forehand, R., Fauber, R. & Brody, G.. (1987). Self-perceived and independently observed competence of young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recent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5-27.
- O'Brien, M., Margolin, G., John, R. S. & Krueger, L. (1991). Mothers' and sons'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simulated marital and family confl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692-703.
- Quiggle, N. L., Garber, J., Panak, W. F., & Dodge, K. A. (1988).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 and Child Behavior Problems

Seung-Hee Lee

Kwang-Woong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that affects child behavior problems. The participants were 465 fourth, fifth and sixth graders in three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d two-way ANOVA.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child indicated more withdrawn behavior when the frequency of marital conflict was high and the child indicated more withdrawn behavior and immature behavior when the intensity of marital conflict was high. Children who perceived that marital conflict was not peacefully resolved indicated more immature behavior and children who perceived that marital conflict was threatening indicated more hyperactive behavior, withdrawn behavior, and immature behavior. Second, children indicated more withdrawn behavior and aggressive behavior when parent-child relation was controlled. Third, the child indicated hyperactive behavior and aggressive behavior when the frequency of marital conflict was low and when parent-child relation was controlled. The child indicated aggressive behavior when the intensity of marital conflict and resolution were high and when parent-child relation was acceptive.

Keywords :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 child behavior problems